

삼성전자, '갤럭시 북5 Pro' 공개... "AI PC 시장 이끌 것"

북 시리즈 최초 'AI 셀렉트' 탑재
갤럭시 모바일 제품 연결성 강화
14형·16형 2종... 내달 2일 출시

흐릿한 조선시대 당시 풍경 사진이 고화질로 변환되며 마치 최근 사진처럼 변신했다. 20년 전 서울의 모습을 담은 오래된 사진도 마치 오늘 찍은 듯한 선명한 사진으로 바뀐다. 화면에 보이는 명동성당 사진 위에 손으로 원을 그리자 명동성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PC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그간 볼 수 없던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해 성능을 향상했고, 스마트폰·태블릿과 연결을 강화한 신제품으로 AI PC 시장 내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12일 신형 AI PC '갤럭시 북5 프로(Pro)'를 첫 공개했다. 갤럭시 북5 프로는 인텔과 협력해 출시된



'갤럭시 북5 Pro'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MX사업부 갤럭시 에코 비즈 팀장 이민철 상무(왼쪽)와 인텔코리아 삼성사업총괄 백남기 부사장 12일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 '갤럭시 북5 Pro' 미디어 브리핑 행사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만큼 삼성은 이번 AI PC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분기 글로벌 AI 탑재 PC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49% 증가한 1330만대를 기록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AI PC 출하량은 2024년 5000만대에서 2027년 1억6700만대까지 3년간 2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PC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에 다양한 AI 기능을 탑재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갤럭시 AI 기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Copilot+) PC 기능을 모두 탑재해 AI 가동 성능을 끌어올린 점이다. 최대 47 TOPS(초당 최고 47조회 연산)의 NPU를 지원하는 AI 칩 루나레이크를 탑재했다.

이민철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

업부 갤럭시 에코 비즈 팀장(상무)은 "성장하는 AI PC 시장 상황 속에서 갤럭시 AI 기반으로 대중화를 이끌 '갤럭시 북5 Pro'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여 기쁘다"며 "다양한 제품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하며 독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AI 셀렉트'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에 AI 셀렉트를 갤럭시 북 시리즈 중 최초로 탑재했다.

이는 궁금한 이미지 또는 텍스트가 있을 경우 별도 검색어 입력 없이 터치 스크린에 원을 그리거나 드래그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웹 브라우징, 쇼핑, 콘텐츠 감상 등 검색이 필요한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 이미지 안의 텍스트만 따로 복사

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카페 메뉴판 사진을 찍은 뒤 메뉴판의 텍스트를 복사해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갤럭시 북5 Pro는 강력한 NPU 성능을 기반으로 한 AI 업스케일링 '사진 리마스터' 기능도 지원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오래된 사진을 정교하게 보정하고 저화질 이미지를 고화질로 변환할 수 있다.

특히 '갤럭시 북5 Pro'는 갤럭시 AI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 기능을 탑재해 더욱 향상된 AI 경험을 제공한다. 또 최대 47 TOPS(초당 최고 47조회 연산)의 NPU를 지원하는 인텔 코어 Ultra 프로세서 시리즈 2(코드명 루나레이크)를 장착해 혁신적인 AI PC 경험을 지원한다.

장소와 조명에 상관없이 깨끗한 화면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빛 반사 방지 패널도 탑재했다. 또한 노출 시간이 다른 세 개 프레임들을 하나로 합친 '스타게드 HDR'을 카메라에 신규 적용해 깔끔하고 선명한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의 편리한 연결도 지원한다. 갤럭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연결해 ▲사진·문서·파일을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빅 웨어'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제어할 수 있는 '멀티 컨트롤' ▲PC 화면을 태블릿에 확장하거나 복제해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폰 링크' 기

능을 활용해 갤럭시 북5 Pro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서류 투 서치 ▲노트 어시스트 ▲실시간 통역 등 스마트폰에서 지원되는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PC의 대화면에서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최대 25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삼성 관계자는 "기존 제품들은 CPU, GPU, NPU가 합쳐진 파일 외에 메모리칩을 따로 탑재했다면 이번 신제품은 인텔과 협력해 메모리칩까지 더해진 파일 하나만 탑재해 배터리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인텔과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AI PC 시장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백남기 인텔코리아 삼성사업총괄 부사장은 "양사는 지난 30년간 PC 사업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AI PC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성장하는 AI PC 시장 상황에서 갤럭시 AI 기반으로 대중화를 이끌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다양한 제품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해 독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갤럭시 북5 Pro는 내달 2일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크기는 35.6cm(14형), 40.6cm(16형),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 각각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 전극봉 제조기술 국산화 성공

직경 300mm 고품질 UHP 제조
민관협력 대표 성공사례 평가

포스코퓨처엠은 철강 생산공정의 필수 소재인 전극봉 제조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의 제철공정 부산물인 콜타르로 만든 침상코크스를 활용해 직경 300mm 고품질 UHP(초고전력)급 전극봉 제조 기술을 국산화했다.

이번 국산 전극봉 개발은 민관협력의 대표 성공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00mm 이상급

인조흑연 전극봉 기술 개발' 국책 과제에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4년 9개월 간의 연구개발 끝에 이뤄낸 성과다. 포스코퓨처엠은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전극봉의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 참여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제품·공정 개발 및 제조설비 구축을 맡았고 포스코MC머티리얼즈와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금오공대는 원료 물성 개선 및 제조 공정 최적화, 시제품 개발을 담당했다.

전극봉은 고부가가치 탄소소재로 전기 제강공정에서 철 스크랩을 녹여

쇳물을 만들거나, 용광로에서 생산한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 공정에 사용된다. 전극봉은 전기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전극봉의 직경이 크고 전극 밀도가 높을수록 전력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내 철강업체는 매년 3만 톤 이상의 전극봉을 전량 수입해 왔고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제조 기술 국산화가 국내 철강산업 생산 체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제철, 탄소저감 열처리 기술 개발

정부 신기술인증 획득

현대제철은 현대차와 탄소저감 열처리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정부의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설계와 열처리 양산 설비 최적화를, 현대차는 기술 아이디어 제시와 부품화 제조 기술 평가를 맡았다. 결과적으로 공정 시간을 78% 단축하고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해당 기술은 오는 2025년부터 양산되는 팰리세이드, 투싼, 쏘나타, 아반떼 등 차량 부품에 적용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독자개발한 열



신규 열처리 기술을 개발한 현대제철-현대차 직원들이 신기술인증을 받은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현대제철

처리 기술에 대한 신기술인증을 획득해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차동기어 외 다양한 소재에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CES 참가... '휴먼 테크' 기술 선보인다

전략 제품 16종 전시 예정

현대모비스가 매년 초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각축장이 됐던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에서 '휴먼 테크'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이번 CES 주제는 'Beyond and More'(비욘드 앤드 모어)



현대모비스 CES2025 전시부스 조감도.

로,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휴먼 테크'를 통해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시 부스 디자인도

물리적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에서 투명함을 강조했다.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주요 휴먼 테크 기술은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휴먼 센트릭 인터리어 라이팅 시스템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엠브레인)이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프라이빗존'을 운영해 글로벌 수주 대응을 위한 전략 제품 16종을 전시하고 고객사 맞춤형 영업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오토에버, 국내 최초 'SOTIF' 인증

(자율주행차 안전성 국제 표준)

기업 컨설팅 등 신사업 박차

현대오토에버가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안전성 기술력을 확보하며 미래차 시대 준비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오토에버는 12일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 표준 인증인 'SOTIF'(ISO 21448)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SOTIF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2년 제정한 기준으로, 예측하지 못

한 돌발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 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한다.

현대오토에버가 인증받은 대상은 자율주행 시스템과 밀접한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산출물 40여 종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인증을 발판으로 자율주행 시스템과 ADAS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